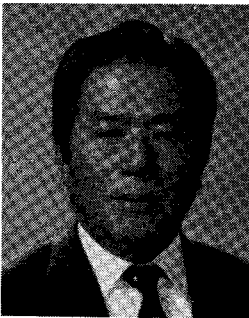


## 초대의 글

#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 효율적 대처방안



**노을한**/한국통신  
통신망사업본부장

### 주요 약력

- 1936. 2월생
- 한양대 전기공학과 졸업(1963)
- 집거리통신본부장(1984)
- 올림픽통신사업단장(1987)
- 민영화기획단장(1989)
- 기술기획실장(1989)

## 1. 서론

이미 “개방”이란 단어는 한·미간 쌍무적으로 전개되어온 각종 협상이나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 등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꽤 익숙해 진것 같다. 그 상세한 실체와 앞으로 나타날 영향은 확실하게 파악하거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언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들 있는 것 같다. 흔히 이야기하는 무역전쟁, 즉 개방이란 싸움이 확대되면 우리는 당연히 패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실로 부지기 부지피(不知己不知彼)의 상황이 아닌가 한다.

개인은 상대방들과 어울려 조직화되며 조직속에서 상호 의존적 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간다. 조직이나 국가의 차원도 그러하다. 즉 어떤 일방이 영속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환경이란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적합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적 거래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자기 지피(知己知彼)의 지혜가 필요하며 손자방법에서는 이를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기본적 요구사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의 통신시장이 급격한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될 격변을 거쳐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점과 편의 위주로 운영되어오던 종래의 통신사업이 새로운 면모로 성숙된 시장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시장도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의 진입이 활발할 것이며 그에 따른 시장잠식이나 정보처리 및 활용의 대외 의존성 심화도 예상된다.

## 2 국내 통신시장 실태

기본통신 서비스 분야는 80년대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선진국 수준에 거의 도달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고도 서비스 분야의 사업활동은 그간의 독점적 시장 보호정책과 아울러 수요 저조로 아직은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도 서비스 관련 기술이나 시장 확충 및 점유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개발 지원 및 표준화와 기술인력의 대거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단말기 분야는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생산·판매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서비스의 고도화와 개인화에 따라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단말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통신망 장비에 있어서는 TDX의 성공적 개발로 교환기술 축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3. 통신시장 개방요구

우선 무엇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난 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1989년부터 전개되어온 한·미간 통신협상의 대체적인 윤곽은 이미 드러났다. 통신서비스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대중을 이루고 있는 통신용기기 시장에 있어서 단말기 시장을 개방하고 망장비 조달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이와 같은 시장의 진입을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통신기술관련 표준제정 절차에 외국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본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통신분야 협상의 대체적인 방향도 한·미 통신협상에서의 개방 방향과 대동소이하다.

### 4. 통신사업 환경변화

세계적 개방추세에 부응한 국내 통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통신사업 구조조정, 통신관련법규 전면개정 등 대대적인 통신개혁을 단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개혁이 추진된 선진국들은 물론이며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 까지 통신분야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신분야 후발국가들이 취약한 기본통신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통신 사업분야까지 과감한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세계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

정부의 통신개혁 조치로 조만간에 국내 VAN서비스 및 단말기시장에 외국사업자가 속속 진입할 것이다. 그들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튼튼한 자금력과 축적된 판매경험 및 전략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기간 통신망에 대한 상호접속과 공정경쟁을 요구할 것이며

**국내 통신시장도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의 진입이  
활발할 것이며 그에  
따른 시장잠식이나  
정보처리 및 활용의  
대외 의존성 심화도  
예상된다**

**통신사업자들의  
최대한의  
변신노력은 물론  
장기적인  
통신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국내 기술표준 제정절차에 참여하여 기술우위를 심분 활용하려 할 것이다.

## 5. 대처 방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통신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있는 국면에 적절히 대처할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국내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한 통신사업 체질강화와 동시, 대외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을 사업무대로 활용하므로써 통신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통신사업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한국통신을 비롯한 국내 공중통신 사업자들의 경영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업마인드 형성과 경쟁 대응력 강화, 해외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 과감한 기술개발전략 수행, 국가기술 표준화 확대추진, 정보통신산업의 중점 투자로 국내 고도서비스시장 개발은 물론 해외 대규모사업자의 국내진입에 대한 대응태세 확보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통신시장 자유화, 국제화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필두로 해외 고도서비스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국제 VAN거점 확보와 함께 국내 VAN사업의 기술, 경영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신분야 후발국가들의 기본 통신시설 확충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통신장비산업과 용역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인근국가 통신시장 개척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등 통신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6. 결 론

개방국면에 대응하여 국내 통신시장 보호육성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최대한의 변신노력은 물론 장기적인 통신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적으로 조화된 힘을 키워 개방환경에서 물러서지 않는 능력을 갖추므로, 통신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